



특별선교주일

예배와 기도

인종평등선교주일



이 예배 자료는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의 인종평등선교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자료집에 포함된 다른 자료들과 함께 예배에 활용하세요.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 하셨습니다.

회중: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인도자: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이들, 상처 입은 이들, 잊혀진 이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회중: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인도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담을 넘어, 우리의 익숙한 경계를 넘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 맺도록 부르십니다.

회중: 우리가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 안팎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치유하며 환영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다 함께: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이곳을 떠날 때 교회의 담장을 넘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사람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을 찾는 사람들,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보

게 하소서. 이곳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돌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릴 만큼 분주하고 무관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긍휼과 용기와 겸손, 그리고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교회가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는 치유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됨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와 오늘의 신앙인들이 전하는 말씀

“인생에서 가장 끈질기고도 긴급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제자도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 주니어스 B. 닛슨 목사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누구도 진정 자유롭지 않습니다.” — 패니 루해머

“섬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가입니다.” — 마리안 라이트 에델먼

“교회는 분열된 세상 속에서 희망의 표지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 피터 스토리

“사회적 성화 외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 존 웨슬리



특별선교주일

예배와 기도

인종평등선교주일



예배 추천 찬양

전통 찬송 추천

- “다함께 찬양해”
(Lift Every Voice and Sing)
- Jesu, Jesu
- “주 믿는 형제들”
(Blest Be the Tie That Binds)
- “제가 여기 있사오니”(Here I Am, Lord)
- They'll Know We Are Christians
by Our Love
- The Summons
- Help Us Accept Each Other

현대 예배 찬양 추천

- “주의 나라 세우소서”
(Build Your Kingdom Here)
- “축복”(The Blessing)
- “길을 만드시는 주”(Way Maker)
- “한결같은 하나님”(Same God)
- “하나님의 선하심”(Goodness of God)
- Make Room
- “다시 행하소서”(Do It Again)
- “불 가운데 함께하시는 분”
(Another in the Fire)

가스펠 및 공동체 찬양 추천

- I Need You to Survive
- “온전한 찬양”(Total Praise)
- “왕 되신 주께로”
(Take Me to the King)
- “내 걸음을 인도하소서”
(Order My Steps)
- “하늘의 멜로디”
(Melodies From Heaven)
- Imagine Me
- Encourage Yourself

파송과 축복의 기도

이제 이 교회의 문을 나서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잊혔다고 느끼는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소망이 필요한 사람을 품으십시오.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환영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긍휼과 용기와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향해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연합감리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재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는 담대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사역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나눔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은사를 나누며, 더 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고,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재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는 담대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사역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나눔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은사를 나누며, 더 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고,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스테파니 무어 핸드 목사(박사) 서노스캐롤라이나연회 전도 담당,
조직 변화 컨설턴트

영향력을 위한 연합: 우리의 관대함은 지역사회들을 강하게 하는 연결을 만듭니다.